

##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권성아(평화한국 평화제작소)

### 국문요약

북한은 1990년대 단군릉 발굴과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국사교육을 중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강화시킨 데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강성대국 건설'이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역사적 과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등학교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략의 역사"를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하여 가르침으로써, 이들에 의한 '죄악의 역사'를 '증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남한을 '파쇼독재체제,' 이들에 의한 '식민지국가,'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역사교육의 근간을 이념교육에 두고, 특히 최근 헌법을 개정하여 '군인'을 '인민대중'에 포함시키는 등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공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력사』 교과서는 이념의 편파성을 극복하여, 민족의 역사적 일체감과 문화적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제어: 조선력사, 이념교육, 북한헌법, 선군정치, 강성대국, 3대 세습체제, 남북통합, 상생·공영의 통일, 역사적 일체감

---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평화학 연구사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를 보는 틀

현재,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2012년 선군(先軍)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 건설”이다. 북한 당국의 모든 움직임은 이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작된 남북 간의 갈등은 금강산에서의 박왕자 여사 피살사건과 개성공단 남측 인력 억류사건으로 경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 들어서서는 북한이 1월 남북 간에 전면대결을 선언하더니,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러다 2010년에는 1월 15일 청와대를 포함한 본거지를 없애기 위해 보복성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1월 27일에는 북한이 설정한 NLL을 넘으면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군사대결의 연장선상에서 3월 26일 천안함사태가 발생하고 11월 23일 연평도사태까지 일어나, 남북관계는 완전히 경색되고 한반도는 전쟁의 기류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은 2011년에 들어서서 ‘5·24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는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군부의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파탄 상황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나이가 너무 어린 데다 혁명의 경험이 없고,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데다<sup>1)</sup> 북한 경제는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1) 이영종은 북한이 “한때 ‘세습을 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며 3대 부자 승계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던 김정일이 후계결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건강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pp. 112~113.

이에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여,<sup>2)</sup> 1998년 9월 5일 기존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 규정하고<sup>3)</sup>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령도자’로 규정하고(100조) 기존의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하고(3조),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로 규정하였던 ‘근로인민’의 개념 속에 ‘군인’을 추가시켰다(4조). 그러면서 국방 부문에서 ‘공화국 무장력 사명’을 “혁명의 전취물 보위”라고 규정했던 것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라고 수정하였다(59조).

이전에 본인은 한 연구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이념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증거로 헌법의 제·개정을 든 바 있다.<sup>4)</sup> 그러면서 그러한 국가이념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과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sup>5)</sup>

① 소련식 사회주의기(1945~):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하고<sup>6)</sup>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세계혁명의 입장에서 반일·반제 교육 실시<sup>7)</sup>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4.9.)” 통일부,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2009.9.28), pp. 4~2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5.)”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p. 524~525 전문.

4) 권성아,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의 교육이념 변화: 국어와 공산주의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2호 (2003), pp. 145~171.

5)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성아, “북한의 교육과정 정책,”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새 인식 7-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성남: 경인문화사, 2006), pp. 253~296 참조.

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1948.9.8.)”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법 강좌』 (동경: 학우서방, 1958), pp. 127~140.

7) 당시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평양: 조선교육출판사, 1955)과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사회과학

② 주체사상기(1967~): 6·25전쟁 이후 1955년부터 마련한 주체사상을 1967년 사회 전반에 펼쳐가면서 레닌주의에 주체사상을 병합시켜 1972년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하고,<sup>8)</sup> 그에 입각한 사회주의교육학을 실천하면서 김일성 우상화 교육 전개<sup>9)</sup>

③ 민족제일주의기(1986~): 198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우상화 교육도 실시하면서,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를 보고 오로지 주체사상만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를 떠나가고 있음을 1992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강조하고,<sup>10)</sup>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교육<sup>11)</sup>

④ 강성대국론기(1994~):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중심으로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론으로 나가면서<sup>12)</sup> 1998년 9월 5일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헌법임을 전문에 밝히고, 김일성 신격화 교육과 붉은기사상<sup>13)</sup> 교육으로 반제 교육 강화

이러한 사회 및 교육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1999년을 “강성대국건설의

---

출판사, 1990), 2편과 3편 참조.

- 8) “북한헌법(1972.12.27),”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pp. 357~372.
- 9) 이에 관해서는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와 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및 리영환, 『조선교육사』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참조.
- 10)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2.4.9),”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개요』 (1992), pp. 517~541.
- 11) 이에 관해서는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48~273과 리영환, 『조선교육사』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참조.
- 12) ‘북한에서 선군정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자 사설에서이며,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는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자 사설에서이다.
- 13) 이에 관해서는 김정일,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참조.

위대한 전환의 해”로 삼고,<sup>14)</sup> 그 다음 해에는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펴냈다.<sup>15)</sup> 그리고 대내적으로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sup>16)</sup>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21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교과명에서 이전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으로,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02년 9월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0월을 기하여 중학교 6학년에서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이라는 교과를 새로 배정하였다.<sup>17)</sup> 이는, 『조선력사』 과목에서는 1920년대까지만 다루고 있으므로 그 이후 즉,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남북한에 대한 ‘만행’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교과이다.

또한 “공산주의도덕” 과목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도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9년 개정 헌법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함께 명기하던 조항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29조, 40조, 43조 등),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 건설로 북

14)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 88.1.1),”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452~464.

15) 김재호,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건설전략: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이에 대한 평가는 강성중,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서울: 을유문화사, 2004) 참조.

16) 신호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2006), pp. 40~41. 당시의 교육 전반에 관해서는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10호 (2004) 참조.

17)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한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독립을 실현하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틀어지고 개척해 나가려는 것은 현 시대의 기본추세”라고 하면서, 2004년부터 선군사상을 ‘선군시대’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18)</sup> 그러면서 단순히 선군을 일컫는 ‘군대’만이 아닌 ‘수령’과 ‘사상’ 및 ‘제도’의 ‘4대제일주의’로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선군정치가 단순히 군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군의 조직과 문화를 사회생활 전반에 모범화·정치화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sup>19)</sup>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원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포기하고, 사회 전반에 군인을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만을 견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으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009년 5월경 김정운을 후계자로 찬양한 합창곡 ‘발걸음’을 내놓고 ‘청년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그리고 2010년 9월 27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를 통해 김정운에게 ‘조선인민군 대장’ 계급을 수여하고, 그 다음날 열린 로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완결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앞서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이념교육이 헌법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점을 이념교육의 핵심인 국사

18) 김원삼·최순옥,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19) 정창현, “북한의 정치체제와 변화 전망,”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겨레하나 통일강좌』, 제2강 (2006), p. 7.

20) 이와 같은 사실은 한 탈북교사가 2010년 7월 8일 하나원 개원 11주년 행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음 날 언론에 유출되며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교과서의 목차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피고, 현행 국사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이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 동안의 북한 이념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의 북한사회 및 국사교육의 변화 속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조선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이념교육의 특징

### 1. 북한의 국가정책과 『조선력사』 교과서의 변화

국가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바로 교과서에 반영된다. 특히, 국가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sup>21)</sup>에 따라 교육 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국사교육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국가이념인 주체사상이 완성되어 실천되기까지의 국사교육의 변화는<sup>22)</sup> 다음과 같다.

북한은 분단과 더불어 1945년 8월 25일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한 이후부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6·25전쟁을 치르던 195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식 사회주의’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소련을 따라 배우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구호로 내세웠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조선력사』 교과서의

21) 북한 통치이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성장, “통치이념,”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pp. 25~69 참조.

22) 남한과 북한 국사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은 김선규·김인식·최호성,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참조.

목차를 보면,<sup>23)</sup> 전체 13장 중 3·1운동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7장 이후부터는 “소련식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7장에서는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이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8장에서는 그런 사상을 가진 김일성의 영도 하에 항일무장투쟁이 이루어졌음을, 9장에서는 소련 군대에 의한 해방을 강조하였으며, 10장 이후에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북한 정권의 수립 등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시작하여 주체사상을 만들어가던 1960년대 전반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소련식 공산주의 혁명을 보다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보다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때 사용된 교과서를 보면,<sup>24)</sup> “소련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말 대신 “맑스-레닌주의의 보급”(6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김일성 원수의 항일 투쟁”이라는 말 대신 “김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김일성의 “동만 혁명 근거지”를 9장에서는 “조국광복회”와 “장백 혁명 근거지”를, 그리고 10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목차로 내걸고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완성된 1960년대 후반인 경우에는, 국사 교과서에서 ‘북한 정권의 자주적 주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5)</sup> 그 증거로는 1950년대 국사 교과서에는 “소련 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이라고 하던 것을 그냥 “8·15해방”(7장 1절)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적 세 당의

23)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력사』(제3분책) (동경: 학우서방, 1957).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의 북한 국사 교과서는, 평양에서 발행한 것은 구할 수가 없었고, 모두 동경에서 출판한 것만 통일부 북한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24)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 편,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2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64).

25)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 편,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2·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67).



창건” 대신 그냥 “조선공산당 창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또한 6·25전쟁 때 반공격(9장 5절)한 것이나 “적극적 진지 방어”(9장 6절)한 것에 대해 중국의 지원 부분 등을 생략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주체사상을 사회 전면에 펼쳐간 1970년대에는, 이전 국사 교과서가 북한 정권과 경제 발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면, ‘조선로동당의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중심의 역사 서술로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드러난다.<sup>26)</sup> 그 증거로는 6장 4·5·8절에서 1960년대 사라졌던 “조선인민군 창설”과 “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 및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 항목이 제목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7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5절)를 강조하고 9장 1절과 10장 21절에서 “조선로동당 3·4차 대회” 항목을 신설하여 집어넣었으며, 9장 3절과 10장 3절에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촉진과 국방력의 강화” 항목을 신설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 교육과정 정책의 가장 큰 주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인 바, 고등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우선 국사 교과서를 편찬할 때마다 “머리말”에는 대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왕이나 봉건통치자들의 역사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투쟁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알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1957년도의 경우,<sup>27)</sup> 목차를 서술함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부르조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장의 제목이 “...을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

26)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 편, 『조선력사』 중급학교 제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0).

27) 위의 책, 차례.

의 한 절 이상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72년도도의 경우,<sup>28)</sup> 2장 고대국가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조선과 부여 이외에 ‘진국’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삼국시대를 “봉건국가의 형성”(3장)으로 고려시대를 “통일적 봉건국가”(5장)로 그리고 조선시대를 “15세기 봉건제도의 발전”(7장)으로 다루면서, 이때를 비롯해 매 시기 발생한 ‘인민들의 투쟁’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도 교과서에서는,<sup>29)</sup> 원시사회를 ‘씨족공동체’(1장 2절)로 명명한 것과 고대국가를 ‘노예소유자사회’(2장)로 명명한 것이 처음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 교과서에 비해 ‘고구려’(3장 2·4절)와 발해를 ‘발해국’(4장)으로 칭하면서 그 성립과 발전 및 종말과 문화를 소상히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이전 고급학교에서는 “13~14세기의 고려”를 3절로 평이하게 다루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12세기 말 전국적 농민폭동”(1절)으로부터 몽골뿐만 아니라 “왜구를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3절)까지 5절에 걸쳐 소상히 다루고 있다.

1984년도 교과서의 경우에는<sup>30)</sup> 고구려를 더욱 강조하여 4장으로 별도로 취급하면서, 그때의 “평양 건설과 문화의 발전”(2절)을 자세히,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백제와 신라의 “일본 려도에로의 진출”(5장 3절)과 고려의 경제발전 대신 “문화발전”(7장 4절)을 다루고 “세계에 이름난 고려”(5절)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고려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1984년 당시 중요한 변화로는, 이전까지는 ‘인민들의 투쟁 중심

28)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편),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1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2).

29)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편), 『조선력사』 중급학교 제2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81).

30)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편), 『조선력사』 중급학교용 (동경: 학우서방, 1984).

의 역사로 다루던 것을,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현재의 ‘북한 중심의 역사로 확실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조선시대를 ‘리조’(9장)로 명명하면서, 1972년도에는 ‘봉건 제도’로 칭하여 정치와 문화 부문만 다루었는데 반해, 1984년도에는 ‘봉건경제’(10장)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그에 따른 “봉건적 착취의 강화”(2절)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12장)을 새로운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갑신정변·갑오개혁 등으로 부르던 것을 “1884년 부르조아혁명”(17장)과 “1894년 부르조아개혁”(18장) 등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대조되는 ‘부르조아혁명’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 2. 강성대국론기 『조선력사』 교과서의 변화

북한이 국사 교육과정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1998년도이다. 북한에서 국사 과목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고등학교에서만 가르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2~4학년에서 가르쳤는데, 1998년도 교과서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1학년과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의 이야기 역사로 풀어나갔다. 또한 2000년도에는 5학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6학년까지 국사교육을 확대하여, 2~4학년에서만 시대 중심의 서술식 역사를 가르치던 것을, 1998년 이후에는 3~6학년으로 보다 확대·분산하여 가르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1993년 단군릉을 발굴하고<sup>31)</sup>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강

31) 단군릉 발굴에 관한 것은, 북한문제조사연구소에서 나온 『북한의 ‘단군릉’ 발굴 관련자료-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1993)과 이형구 편, 『단군과 단군조선』(서울: 살림터, 1995) 참조. 그리고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북한의 역사학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은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 문화론

성대국론으로 나가면서,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자리를 맡고, 그러면서 교과서의 서술방식을 달리 하여 국사교육을 중·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강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sup>32)</sup>

1학년에서는 원시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를 인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sup>33)</sup> 총 29개 단원 중 원시시대를 다룬 1단원을 제외하고 나라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등중학교 제1학년용 『조선력사』 교과서의 국가별 비중

국가명	해당 단원(과)	총 단원 수(%)
고조선	2, 3, 4, 5	4과(14.3)
고구려	6, 8, 9, 10, 11, 12, 13, 14, 15, 17, 18, 29	12과(42.9)
백제	7(공유), 19	2과( 7.1)
(후기)신라	7(공유), 16, 20, 21, 22, 23, 24, 25	8과(28.6)
가야	16	1과( 3.6)
발해	26, 27, 28	3과(10.7)

고구려에 12개 단원을 배정함으로써 총 단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신라가 8개 단원을 차지하였는데, 여기에는 남한에서 통일신라라 부르는 후기신라 때 것까지 합해진 것이다. 이어서 고조선이 4개 단원을 그리고 발해가 3개 단원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백제는 한 단원은 신라와 공유하면서 2개 단원을, 그리고 가야는 1개 단원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가 전체

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pp. 87~109 참조.

32) 당시의 북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 전반은 이찬희,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4년 여름), pp. 195~219 참조.

33)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2001).

단원의 68% 정도 차지하여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기타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학년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인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sup>34)</sup> 총 34개 단원을 인물이 공헌한 활동 영역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조선력사』 교과서의 인물별 비중

활동 영역	해당 단원(과)	단원 수(%)
새 나라를 건설한 왕	1, 11	2과( 5.9)
나라 굳건히 지킨 장군	2, 3, 15	3과( 8.8)
과학·문화 발전	4, 5, 8, 9, 12, 13, 19, 21	8과(23.5)
농민·인민봉기	6, 14, 20, 25, 27	5과(14.7)
외적에 대항	7, 10, 16, 17, 18, 22, 23, 24, 31, 32, 33, 34	12과(35.3)
일제의 잔악	26, 28, 29, 30	4과(11.8)

공헌한 사람들의 직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12개 단원)의 비중이 총 단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군(3개 단원)의 역할도 대략 이와 같다고 할 때, 이들의 비중이 거의 45%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를 새로 세운 왕(2개 단원)과 여러 가지 발전 등으로 나라의 과학·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들(8개 단원)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농민과 인민들(5개 단원)에게 대략 15%를 배정하였으며, 특별히 일제의 잔악상을 드러내는 데에 4개 단원(약 12%)을 배정하였다.

<sup>34)</sup> 리태영,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2001).

3학년에서는 1학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원시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를 다루되,<sup>35)</sup> 1학년과는 달리 사건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단원도 ‘과’가 아닌 ‘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를 표기하는 방식이 남한과는 차이가 있는 바, 북한은 원시시대를 ‘공동체사회’로 묘사하고 있으며(1장), 고대국가를 ‘노예소유자사회’로 묘사하면서 여기에 고조선뿐만 아니라 부여와 고구려 대신 ‘구려’ 및 삼한 대신 ‘진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2장).

그리고 삼국시대를 ‘봉건사회’로 묘사하면서, 특히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강성대국’이라는 호칭을 앞에 붙인 것으로 보아(3장), 북한이 현재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 받은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국시대를 다룰 때에는 발해와 ‘후기신라’로 절을 나누어 다루었다(4장).

4학년에서는 3개 단원에 걸쳐 고려시대를 다루고 있는데,<sup>36)</sup> 특히 2장에서는 12세기 후반의 ‘무신정권’(1절)과 13세기 초까지의 ‘대몽민전쟁’(2절) 및 몽골을 ‘봉건몽골’로 호칭하면서 이들과의 전쟁(3절)과 “국토완정을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4절)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항하여 싸운 농민과 인민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5학년에서는 5개 단원에 걸쳐 조선시대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다루고 있는데,<sup>37)</sup> 재미있는 것은 1장에서 조선시대를 ‘리조봉건국가’로 호칭하면서 성립과정은 다루지 않고 15세기의 발전과정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학년에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에 대해서는 “첫 통일국가를

35) 오영철 · 한영찬,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36) 리인형 외 공저,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37) 제갈명,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2001).

세운” 왕(1단원)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 대해서는 “군사를 돌려 세운 리성계의 죄악”(11과)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6학년에서는 총 3장에 걸쳐 일제강점기를 다루었는데,<sup>38)</sup> 1장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한일합방(1910년)이 아닌 을사보호조약(1905년)으로 잡았으며, 2장에서는 3·1운동을 ‘3·1인민봉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장과 절의 표기 없이 “조선민족의 풍습”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국사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강성대국론기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대외관

강성대국론기 북한의 국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전 같은 일제강점기 전반부까지 다룬 『조선력사』로 국사교육은 끝났을 텐데, 2002년도 10월에 중학교 6학년 국사 교과서가 또 하나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중등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 교과서는 그 제목이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sup>39)</sup> 북한의 국사교육과 이를 통한 이념교육이 강성대국론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반제국주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 교과서의 “머리말”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38)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39)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야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쭉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잘 알고 놈들을 끝없이 증오”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데서 드러난다.

제1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파쇼통치”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후반을 다루고 있는데,<sup>40)</sup> 제1절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포악성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 개시 이후에 절정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이때 여러 “파쇼단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저들의 침략전쟁에 충 동원하여 《공산주의사상 및 운동을 박멸하고》 《일본정신을 양양》” 시킨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에 대한 박해가 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p. 3). 특히, 일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무모하게 가로 막아 나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투쟁을 소개하고 있다(p. 4).

제3절에서는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이란 제목으로 1930년대 이후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에서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사회문화 부분에서 1930년대부터 일제가 들고 나온 ‘내선일체’와 ‘동조동근’론을 말하면서, 이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영토》에서 산 《하나의 민족》이며 《조상이 같다》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주장”으로 일본과 조선을 “본래 하나의 조상을 가진 옛날의 일본족이며 오늘의 조선인은 그 후예들”이라고 역사를 꾸미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p. 10).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역사에 관한 책을 20만부나 압수하여 불살라 버렸

<sup>40)</sup> 이 시기 북한의 일제에 대한 투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신주백,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pp. 209~240 참조.



다고 하면서, ‘조선사편수위원회’를 만들어 단군조선을 포함하여 삼국시대 이전 고대국가의 역사를 원시사회의 전설이나 다름없는 역사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11).

제2장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침략전쟁도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이라는 제목으로 8·15해방으로부터 6·25전쟁 시기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제1절에서는 미국이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에 의하여 그 무장이 해제”된다고 규정한 ‘일반명령 제1호’로 3·8선 분단을 조작하여 “조선분렬의 시초”를 가져 왔다고 하면서, 미국이 군정 통치를 통하여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남반부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고 보았다(p. 13).

그리고 제2절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1948년 12월 1일에 파쑈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조작공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생활의 파쑈화”를 하더니, 1949년 9~10월 사이에는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특히 남로당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보았다(p. 17). 그러면서 1947년부터 북한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더니, “1949년에 이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계획도 완성”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38°선 무장침입에서 괴뢰군이 계속 참패를 당하게 되자 《북벌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p. 18). 즉, 6·25전쟁은 미국과 그 지시를 받은 남한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책동”이라는 제목으로 6·25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제1절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평화〉의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는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면서, 1953년 8월 8일에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하여 “전후 조선문

제의 평화적해결을 가로 막기 위한 미제의 책동”을 다루고 있다(pp. 25~26).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해서 ‘군사적 도발책동’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프에블로호 사건’을 내세우고 있다(pp. 26~27). 또한 미국은 1976년 8월 18일에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판문점사건’을 도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팀스피릿 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여 “이 땅에서 어느 때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정세를 조성”하였다고 보았다(pp. 27~28).

더욱이 1980년대 초에는 미국에 “호전적인”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강력한 미국의 재현”이라는 구호 아래 ‘다발보복전략’과 ‘3대전쟁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보았다.<sup>41)</sup> 그리고 1992년 5월에는 “새로운 세계 패전략”으로 ‘새 지역방위전략’을 내놓았으며,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으로 ‘5027작전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북한의 지하핵시설 문제와 인공 위성 발사를 구실로 불시에 선제타격을 가하여 “《전쟁성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를 먹여치우겠다”는 것이 기본내용이라고 보았다(pp. 29~30).

한편, 제2절은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있습니다”는 김정일 교시로 시작하면서(p. 30), 1965년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회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관계조약’은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하면서 조선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며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적극 복무하도록 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침략적 매국조약”이라고 평가하였다(pp. 30~31).

41)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 pp 28~29. 허성철은 ‘다발보복전략’은 어떤 대상이나 나라가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그 지역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들의 군사적 약점에 대하여 ‘보복’함으로써 세계적 범위에서 ‘다발화’하는 것이며, ‘3대전쟁전략’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근동의 혁명적인 나라들 및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면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를 남한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데, 제1절은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그러쥐고 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본질은 “미제가 《세계제패》를 실현하며 남조선괴뢰들이 《승공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조선의 분열상태를 《고착》시키고 현상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p. 32). 이를 위해 미국은 1969년 초부터 ‘남북대화과 협상’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는 듯 가장하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고 했으며, 1973년 6월에는 ‘유엔 동시 가입안’을 상정하여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선포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완전히 파탄시켰다고 보았다(p. 33).

그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1991년 9월에 유엔에 주동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유엔무대를 우리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데 악용하려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음모는 파탄”되었다고 보고 있다(p.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들은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이른바 《핵사찰》 소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93년 3월 9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3월 12일에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그리고 다음해 6월 13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적고 있다(pp. 33~34).

그러자 이러한 “폭탄선언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할 수없이 조미 회담장에 끌려 나와 1994년 10월에 조미기본합의문에 조인함으로써 영

옹적 조선인민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러한 《유화전략》을 앞세워 경수로 건설과 식량지원을 통하여 북한의 강경정책을 늦추면서 북한을 “회유, 기만하여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반사회주의적외해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p. 34).

제4장 제2절에서는 미국의 남한에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북한은 1960년 ‘4·19혁명’을 “리승만괴뢰정권을 꺼꾸러지게 하기 위한 인민봉기”로 표현하면서, ‘5·16쿠데타’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박정희역도를 내세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군사적 폭력에 의거한 파쑈적 폭압통치 체제를 수립”한 것이라고 보았다(pp. 34~35).

그리고 ‘10월유신’과 ‘제4공화국’에 대해서는 “미제는 1970년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자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간판 밑에 《유신》독재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박정희역도의 1인파쑈독재체제이며 대결과 분렬의 체제, 전쟁체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1979년 10월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자, 미국이 10월 26일 “박정희를 사살하게 하고 《유신》 잔당인 전두환역도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흥계를 꾸미었다”는 것이다(p. 35).

한편, 미국의 지지 하에 ‘12·12군사쿠데타’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역도놈은 《5·17파쑈폭거》를 단행하고 광주인민들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실권을 틀어 쥐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1980년 5월 광주인민항쟁을 교살한 배후조정자이며 원흉”이라고 보았다(pp. 35~36). 그리고 미국은 “군사파쑈독재로서는 더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정치특무 김영삼역도”를 내세웠으나, “《문민정권》

의 파썸적반통일적 본색이 드러나고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문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양양되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연극을 벌려 “국민의 정부”를 출현시켰으나 “《국민정권》 역시 다같이 사대매국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평가하였다(p. 37).

제4장 제3절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라는 제목하에, 1991년부터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일본이 “미제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편승하여 《핵문제》, 《미싸일발사》, 《지하핵시설의혹》 등 회담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오면서” 지연시키다 나중에는 완전히 파탄시켰다고 보았다(p. 38).

그리고 일본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4세기부터 수백 년 동안 일본이 조선의 남부지역에 《일본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배하였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였다”는 것과 “갑신정변의 원인과 성격을 완전히 외곡하면서 애국자인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pp. 38~39).

그리고 이와 같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목적은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로 무장시켜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에 내몰기 위해서”라고 보면서,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을 짓부시고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p. 39).

#### 4. 2008년 이후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의 변화

북한은 2005년경에 들어서서 교과서 인쇄 판본을 완전히 새로 바꾸었다. 줄 간을 약간 넓히고, 한쪽에 39줄 싣던 내용을 31줄로 줄인데다가 가로와 세로의 판본 폭을 1~2글자 정도 줄여, 전반적으로 한쪽에 들어가

는 글씨 양이 적어지다 보니 교과서 전체에 여백이 생기고, 글자판을 새로 바꾸어 글씨가 깨끗해져 훨씬 보기에 좋아졌다. 이전에 없던 ‘컴퓨터 편성’을 하고 그 책임자 이름을 적어 놓았다. 그러면서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만 출판되던 교과서가 중학교 4학년 이상은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아 인쇄소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15~20전 하던 교과서 값을 일률적으로 5원으로 증액·변경하였다.

그러나 목차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단, 제목과 김일성 부자 교시 인용문이 좀 더 큰 글씨체로 바뀐 데 반해 차례는 좀 더 작은 글씨로 바뀌었으며, 철자법, 특히 띄어쓰기가 다소 달라졌다. “살아 왔습니다”가 “살아왔습니다”로 “생겨 나”가 “생겨나”로 바뀌는 등 붙여 쓰기가 늘어났으며, “있을가요”에 없던 물음표가 생겨나는 등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표지에 이전에는 ‘주체91’식으로만 사용연도를 적던 것을 이제는 ‘주체97(2008)’로 사용연도도 밝히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sup>42)</sup> 집필자는 ‘학사 리인형’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표지에 2001년도에는 ‘침성대’이던 것을 2008년도에는 ‘단군릉’ 그림으로 바꾸었다. ‘신라’를 상징하던 것에서 ‘고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머리말”에 보면, 이전에는 ‘조선사람’이라 부르던 것을 ‘조선민족’으로 바꾸었으며, 이전에는 명기하지 않았던 ‘부여’와 ‘진국’을 고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발해 사이에 추가로 명기하였다.

또한 “제2과. 조선민족의 첫 나라를 세운 단군”에서 보면, 이전에는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평양부근인 오늘의 강동땅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탄생지를 묘사했던 것을, ‘부근인 오늘의 강동땅’은 빼고 그냥 ‘평양(p. 9)에서 태어났다고 그 구역을 넓혀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7과.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에서는 3국의 위치를 나

42) 리인형, 『조선력사』 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타내는 지도에서 맨 위에 표기하였던 “후부여”와 “길림”은 생략을 하여 고구려 강역을 훨씬 더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p. 27).

이와 같은 변화는 “제11과. 광개토왕릉비가 전하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고구려가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했다는 표현 앞에 이전에 붙어 있던 “1,500여 년 전”을 생략하고 이전과 다름 없이 “고구려의 땅은 백제와 신라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컸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pp. 39~4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오래된 역사적 과업임을 은연 중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용 새 교과서는 구할 수가 없었고, 4학년의 경우,<sup>43)</sup> 집필자는 2002년도와 변화가 없었으나 ‘학사’이던 집필자가 ‘박사, 부교수로 승진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머리말”에 이전에는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의의를 밝힌 문장에서 ‘혁명의 주인’을 생략했다. 이는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군인’을 ‘근로인민’의 개념 속에 추가시키고, 혁명 세력이 아닌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이제 더 이상 혁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로 여겨진다.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4학년 교과서에서 제1장은 “고려의 국토통일과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제2절. 고려의 통치제도”에서 ‘지방통치기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도 밑에는 여러 개의 주, 부, 군, 현을 두었다. 이러한 고을들의 장관을 원이라고 불렀다(p. 8).”라는 문장이, 새 책에는 완전히 빠져 있다. 대신 “도는 지방통치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군관구, 감찰구였다”라는 문장을 집어넣음으로써(p. 11), 고려시대가 군부 등에 의해 전국을 감시체제로 운영하

43) 한영찬, 『조선력사』 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고 있는 현대 북한과 동일한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게끔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새로 담긴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의도는, 이전에는 “이밖에 고려봉건국가는 지방통치의 실제적인 중심지로서” 4경 3도호부 8목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던 것을, “고려봉건 국가의 실제적인 중심지는” 4경 3도호부 8목이었다고 한 데서도 나타난다. 즉, 이들을 ‘지방통치기구’에서 ‘국가 중심지’로 바꿈으로써, 정권의 분권화나 지방의 자율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교과서에 더 드러내게 된 것이다.

한편, “제3절. 고려-거란전쟁”에서, 이전 교과서에 있던 “구주싸움에서 적의 우두머리 소배암은 어찌나 혼썰이 났던지 갑옷과 무기도 다 켜 버리고 빈 몸으로 겨우 도망쳤다”는 문장을 삭제해 버렸다(p. 20). 이는 북한이 현재의 중국을 의식하여, 중국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방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중학교 5학년용 새 교과서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6학년의 경우,<sup>44)</sup> 속지가 없어 저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전과 내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집필자도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머리말” 서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엿보인다. 첫째, 이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국사 교과서 서술 목적 중의 하나는 “조선사람은 북쪽의 씨비리나 남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생겨났다고 하는 반동적인 궤변에 타격을 주고 조선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땅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남한의 입장을 ‘견해’라고 했던 것을 ‘궤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머리말 후반부에도 이전에는 “서면호의 침입”이라고만 명기하던 것을 “서면호의 침입을 격퇴하는 투쟁”이라고 바꿈으로써, 북한의 인민 투쟁의 역사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었다.

44) 리인형, 『조선력사』 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둘째, 이전에는 “력사학습에서는 또한 지난날의 사실들 특히 인물들에 대하여 그 제한성을 보지 못하고 무턱대고 대단한 명장이나 학자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던 문장을 “력사학습에서는 또한 지난날의 사실들을 당시의 력사적 조건에서 옳은가 그른가, 오늘의 우리 시대에 비추어보면 어떠한가를 잘 가려보아야 한다”는 문장으로 바꾸었다. 이는 역사교육의 의의를 과거 역사의 위대함과 한계성을 깨닫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옳다 하더라도 현대의 북한 상황에 비추어 역사적 해석을 달리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6학년 교과서의 “제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의 “제1절.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발단이 된 가츠라-테프트밀약에 대해, 이전에는 “미제는 필리핀을 지배하며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데 대하여 서로 인정하였다”(p. 4)는 정도로만 서술하였던 것을,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승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서로 《승인》하였다”는 식으로(pp. 4-5) ‘인정’에서 ‘《승인》’으로 방점까지 두어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일본군대’라고 명기하던 것을 ‘일본침략군’(p. 6)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 부르쵸아 《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부르쵸아 《민권》운동’이 제목에 붙었으며, 이어 본문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이 절의 서문에는 ‘애국문화운동’ 앞에도 이전에는 없던 “부르쵸아 《민권》운동이 벌어졌으며 반일의병투쟁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면서 이에 고무되어 부르쵸아 《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다고 적고 있다(p. 13).

6학년 교과서의 제2장은 “1919년 3·1인민봉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3절. 3·1인민봉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주체8(1919)년”식으로, ‘주체연호’를 사용하여 명기하였다는 점이다(p. 26).

그러나 이전에는 이후의 모든 사건에 주체연호를 표기하였었는데, 새 교과서에는 3·1운동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서술에 김일성 일가의 일화가 크게 들어가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봉기당일에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군중의 폭동적 진출에 겁을 먹고 물러”섰는데, “평양에서는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평양숭실중학교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p. 27).

그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일가분들을 따라 만경대와 칠골인민들도 대렬을 지어 평양성으로 밀려갔다”고 하면서, 드디어 김일성이 국사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처음 등장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여덟살의 어린신 나이에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어 만세를 부르시며 보통문앞까지 가시였다. 이날 우리 민족의 류혈을 처음으로 목격하신 어린신 대원수님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번지시였다.<sup>45)</sup>

그러면서 3·1운동의 실패 원인을 “탁월한 수령,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 것과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제한성과 숭미사대주의”에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p. 30). 이는 결국 김일성이 반일민족해방운동으로 시작하여 반제 및 프롤레타리아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3장. 3·1인민봉기 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 운동”에서는 부르주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집어치우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졌다(p. 34)”고 평가하고 있으며, 3·1운동 후 대중운

45) 리인형, 『조선력사』, p. 27.

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들이 실패하면서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고대하였다”(p. 40)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중학교 6학년 국사 교과서의 제3장 마지막은 “제4절. 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1. 과학과 기술” “2. 문학과 음악” 부분이 나오는데, 시가 작품으로, 3·1운동을 겪은 김일성이 1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일제를 쳐부수고 나라를 독립시키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굳은 맹세를 하며 조국을 떠날 때 불렀다는 《압록강의 노래》가 등장한다.<sup>46)</sup>

그리고 마지막에 절 표시 없이 “조선민족의 풍습”이 나오는데,<sup>47)</sup> 민속 명절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있던 ‘4월 팔일’과 ‘5월 단오’ 등은 빠졌다(p. 45). 그리고 송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전에는 제일 먼저 ‘콩’이라고 하던 것을 ‘팥’으로 바꾸었다(p. 47).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민이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민속명절들도 잘 쇠지만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뜻 깊게 기념하는 날은 태양절과 2월 16일 명절”(p. 45)이라고 못 박았다. 즉, 북한의 최대 명절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탄생일이며, 이를 단지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만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명절로 정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 명절에도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 앞에 꽃을 드리고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세배를 시작한다”(p. 46)고 적고 있다.

46) 위의 책, p. 43.

47) 북한의 민속과 생활풍속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박현순, “북한의 생활풍속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앞의 책, pp. 183~208 참조.

### Ⅲ. 남북한 이념교육의 통합 방향

남북의 '통일'은 외적·정치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쪽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내적·사회적으로는 민족 내부의 역사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영토·언어·역사·전통·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온 '한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은 한민족이 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이다. 다만, 하나의 공동체로 융화되거나 통합되는 과정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이면서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내적인 통합의 절차도 차곡차곡 밟아나갈 필요성이 있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라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념과 동떨어져서는 생각해볼 수 없다. 따라서 남과 북이 지난 66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뛰어넘어 조화롭게 통합 혹은 초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 가치를 전제로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세계관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48)</sup>

<sup>48)</sup> 이와 관련해서는 권성아, "21세기 통일한국인상과 홍익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제40권 제5호 (2002), pp. 59-80 참조.

그러나 북한의 국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인민의 혁명과 투쟁 중심의 역사’ 서술에 초점을 두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 발전’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 중심의 역사를 정통으로 체계화하려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49)</sup> 따라서 근대까지는 남과 북이 하나의 공통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으나,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역사관에 의하여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sup>50)</sup>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단군릉 발굴과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국사교육을 중·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강화시킨 데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조선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조선과 ‘강성대국’ 고구려 및 평양 중심의 역사관을 강화시킴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이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역사적 과업임을 은연 중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등학교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들의 ‘조선침략의 역사’를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하여 가르침으로써, 이들에 의한 ‘죄악의 역사’를 ‘증오’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을 ‘파쇼독재체제’와 미국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국가’ 내지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역사가 ‘인민’에 의한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자랑스러운 력사”인데 반해,<sup>51)</sup> 남한의 역사는 ‘국가’가 타국에 의존하여

49) 북한이 남한과 달리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해 왔으며, 어떻게 북한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은 도면희, “북한의 한국사 시대 구분론,”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pp. 57~85 참조. 그리고 북한 역사학계 자체에서 있었던, 시대 구분을 포함한, 역사의 주요 논점은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참조.

50) 남북한 역사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관해서는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에서 특히 제3부(pp. 245~275) 참조.

51)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1.

정권을 유지하려는 ‘수치스런 역사’임을 은연 중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8년 이후에는 인민대중을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규정하면서도 ‘혁명의 주인’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혁명세력과 관계가 없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그러면서 지방의 자율적 통치기구를 약화시키고 있다든가,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중국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방식을 완화시켰다든가,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남한의 입장을 ‘궤변’으로 표현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강점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비되는 ‘부르쵸아 민권운동’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출현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부각시키고 김일성(‘태양절’)–김정일(‘2월 16일 명절’) 탄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인류 공동의 명절’로 가장 뜻 깊게 기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사교육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역사교육의 근간을 이념교육에 두고, 특히 최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군인’을 ‘인민대중’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와 평화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이념교육 정책은 변해야 하며, 국사 교과서의 내용도 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어도 김일성 부자의 ‘교시’는 남한사회에서는 결코 공유될 수 없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표출시킨 것이므로, 교과서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민의 투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소명에 의한 문화의 창조와 발전으로 서술내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와 적으로 보는 입장은 남한을 비롯한 타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적대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므로, 이들 나라를 이웃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울러 ‘원췌’·‘놈’·‘주구’·‘파쑸’·‘역도’·‘괴뢰’·‘책동’ 등의 호전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은 좀 더 객관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용어로 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이 정치적 통일을 뛰어 넘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면, 남북 공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국사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념교육의 편파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까지 국사교육은 각각 별도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만 민족의 역사적 일체감과 문화적 공동체성을 키워 내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해가야 할 것이다.

■ 접수: 2011년 9월 30일 / 수정: 2011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1년 12월 5일

## 【참고문헌】

### 북한의 1차 자료

#### 〈헌법 자료(연도순)〉

-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1948.9.8).”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법 강좌』. 동경: 학우서방, 1958.
- “북한헌법(1972.12.27).”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2.4.9).”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개요』, 199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5).”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4.9).” 통일부.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2009.9.28.

#### 〈교육사 자료(연도와 내용순)〉

-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평양: 조선교육출판사, 1955.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리영환. 『조선교육사』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_\_\_\_\_. 『조선교육사』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국사 교과서(연도와 학년순)〉

-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력사』(제3분책). 동경: 학우서방, 1957.
-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교과서 편찬 위원회 편.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2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64.
- \_\_\_\_\_.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2·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67.
- \_\_\_\_\_. 『조선력사』 중급학교 제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0.
- \_\_\_\_\_.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1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2.
- \_\_\_\_\_. 『조선력사』 중급학교 제2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81.



- \_\_\_\_\_. 『조선력사』 중급학교용. 동경: 학우서방, 1984.
- 홍성찬.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4.
- 홍성찬 외 공저.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 림학선 외 공저.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김병룡·리태영.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 리구숙.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2001.
- 리태영.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2001.
- 오영철·한영찬.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 리인형 외 공저.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 제갈명.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2001.
-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리인형. 『조선력사』 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 한영찬. 『조선력사』 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 리인형. 『조선력사』 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

## 북한의 2차 자료

- 김원삼·최순옥.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 김재호.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건설전략: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88.1.1).”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

- 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 1998년 8월 22일.
-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남한 자료

- 강성종.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서울: 을유문화사, 2004.
- 강우철·신형식.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57집 (1990).
- 권성아. “북한의 교육과정 정책.”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새 인식 7-북한의 교육 과 과학기술』. 성남: 경인문화사, 2006.
- \_\_\_\_\_. “21세기 통일한국인상과 흥의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제40권 제5호 (2002).
- \_\_\_\_\_.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의 교육이념 변화: 국어와 공산주의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2호 (2003).
-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 문화론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 김신규·김인식·최호성.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도면희. “북한의 한국사 시대 구분론.”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 박현순. “북한의 생활풍속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 관련자료-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1993.
- 신주백.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 신효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 이찬희.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4).
- 이형구 편.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5.
-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
- 정성장. “통치이념.”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 정창현. “북한의 정치체제와 변화 전망.”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겨레하나 통일강좌』, 제2강.
-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2004).

Abstract

Changes of Ideology Education Shown through National History Textbooks in North Korea and Proposal for South–North Korea Integration

Kwon, Sung-Ah(Peacemake Center, Peace Korea)

North Korea strengthened national history education by extending targets to all grades in middle school since the occasion of excavating Dangoon Royal Tomb and the death of Il Sung Kim in 1990's. They have emphasized that it is the historical task inherited from national legitimacy to construct the 'Great Strong State' since entering 21st century. And yet they have been removing factors to threaten the 'Third Political Succession.'

On the other hand, they have issued the special edition of national history textbook for 'History to invade Chosun' by 'imperialists', USA and Japan and used it to teach the seniors in middle school. It made them hate the 'history of crime.' It also stipulated South Korea as 'fascio-dictatorship,' 'colony' or nation of subserviency which worships powerful USA and Japan.

In this way, history education is rooted in ideology in North Korea. It is an obstacle to go to co-prosperity unification as they emphasized 'Army Priority Politics' by including soldier into 'the mass of public people' by reforming constitution recently. Therefore, the textbooks of 'Chosun History' which cover history of all,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hange the direction to cultivate the historical sense of unity and sense of

community by overcoming history education biased to ideology education.

**Keywords:** National History Education, Great Strong State, Third Political Succession, Army Priority Politics, Co-prosperity Unification, Historical Sense of Unity.

**권성아**.....

강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평화한국 평화제작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단독 저서로는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공저로는 『통일시대 근현대 민족정신사 연구』,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근현대 민족주의 정치사상』 등이 있다.